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노자는 “올바른 말은 반대된 듯하다”라고 하여 화(禍)가 아니라 복(福)을 지키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기에 노자의 말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느껴진다. 또한 노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백성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분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 국가의 통치자가 낮은 위치에서 도(道)처럼 무위(無爲)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웅성을 알고 자성을 지켜라” 등의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선호되지 않는 가치에 대한 노자의 지향은 확고했다.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개인은 위협을 피하기 위해 선호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노자는 말한다. 도가 무위하여 만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백성은 왕이 무위할 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며, 도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는 존재만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자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치(A)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치(B)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순환한다. 다시말해 A 그 자체에 머물러도 해도 필연적으로 B 상태로 가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노자는 B의 모습 그 자체에 머물러서 서술된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진의는 무위에 의한 통치 측면에서 과도한 A를 줄이는 방식으로 A와 B 간 순환적 균형을 지향하라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욕망과 혼란을 초래하는 인간 사회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A가 아니라 B를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 다수 의견은 A를 극단으로 몰고 가면 노자의 순환적 세계관에 따라 반드시 B를 향하게 되므로 A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B를 함께 가지고 A가 극단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우선 이 해석은 B가 아닌 A를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A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해석을 수용할 경우 역설적으로 순환성이 파괴된다. 순환이란 도의 운행에 관한 것으로, 도의 움직임은 곧 자연의 모습을 가리킨다. 만물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도는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이지 않다. 가령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사과를 맺게 하지만 이 과정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순환은 비단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도 적용된다. 아름다움은 중국에 추악함이 될 것이고, 추악함은 아름다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A를 유지하기 위해 B를 활용하는 해석은 순환 원리를 왜곡한다.

㉢ 소수 의견은 A에서 B로의 과정과 그 반대의 과정을 비대칭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B에서 A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A에서 B로의 전환은 급작스럽고 파괴적이다. 점진적 과정은 점진적 과정과 달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B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B를 유지함으로써 순환을 멈추게 하려는 해석은 노자의 세계관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즉, “왜 B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소수 의견을 지지하는 라우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는 노자의 말을 해석하기 위해 B를 A를 얻기 위한 전략적 상태로 간주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다툼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상태라는 것이다. 라우는 두 개체 간 갈등 구도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노자의 말을 해석했는데 이는 결국 A를 위해 B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라우의 주장은 한 개체 내에서 상반된 태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노자의

태도와 충돌하는 해석이 아닐 수 없다.

B를 지키라는 노자의 말이 B 그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노자의 주장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유발한 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 B를 지키라는 주장은 A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거니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B의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다. A의 과도함 줄여 순환의 진폭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과도한 강압적 통치는 반발과 봉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에 통치자는 강하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약한 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순환 원리에 근거하면 A가 크면 그만큼 B도 크고 작으면 그만큼 작게 되어 둘의 정도는 언제나 같다. 경계해야 할 것은 상태 변화 정도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자연은 적절한 진폭으로 안전하게 순환하지만 인간은 A를 향하는 경향이 있어 과도한 통치 행위가 백성의 욕망을 자극한다. 통치자가 무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위통치’는 백성의 욕망을 적절한 진폭으로 조절하게 한다. 그들은 비록 화와 복에 모두 직면하게 되겠지만 그 정도가 과하지 않아서 백성의 삶은 안정될 것이고 통치자의 권력 역시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도의 존재는 도의 작용과 달리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노자는 A와 B의 지위가 서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 ③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사에는 순환 원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 ④ 무위란 권력자가 통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선호되지 않는 상태란 위협이 도사리는 혼란한 시대 상황을 말한다.

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B가 A보다 부차적이라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② ㉢은 A를 유지함으로써 B에서 A로 가는 점진적 과정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 ③ ㉢은 ㉡과 달리 노자의 순환적 세계관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 ④ ㉡은 ㉢과 마찬가지로 A가 선호되지 않는 가치인데 B에 머물러야 하냐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순환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느냐가 아니라 순환 그 자체가 멈췄다는 것이 문제라는 관점에 동조할 것이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한 제국의 황제가 반란군의 위협을 받고 있다. 황제는 강력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반란군이 먼저 공격해오기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일부러 수도의 방어를 약화시키고, 군대를 후방으로 물린 후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척하며 반란군이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반란군은 황제를 무능하다고 판단하여 수도를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황제는 이들의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주요 지점에 매복 부대를 배치하고, 적군이 수도를 점령하려는 순간 반격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반란군은 황제의 기만 전략에 속아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황제는 자신의 힘을 숨기고 약해 보이는 유약적 태도를 연출함으로써,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는 데 성공했다.

- ① 라우는 황제가 유약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 강력한 군사력을 감추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겠군.
- ② 라우는 유약적 태도가 단순히 약한 상태가 아니라 적을 속이고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적 기만이라는 관점에 반대하지 않겠군.
- ③ 라우는 황제가 수도의 방어를 일부러 약화시키는 전략이 상대방을 제압하기 도구적 장치라는 해석에 동의하겠군.
- ④ 황제의 전략이 유약적 태도로 강한 것의 과도함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라우의 해석은 비판받을 수 있겠군.
- ⑤ 국가 간 갈등 과정에서 황제가 강력한 병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승리를 쟁취한 점은 부드럽고 약한 것에 대한 라우의 해석과 상충하지 않겠군.

4. 윗글의 필자와 ㉠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할 때 ㉠의 관점에서 <보기>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노자는 인간이 선호되는 가치를 지나치게 추구하여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A와 B가 자연스럽게 순환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A와 B의 균형을 인식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요청한다. 이 균형은 무위(無爲)의 가르침 속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균형은 과잉된 A를 덜어내고, 간과되었던 B를 채우는 조정의 과정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강한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부드러우면서도 약한 것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노자의 철학은 과도함을 절제하고 부족함을 메우는 실질적인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자의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행동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태도를 나타내며, 이는 균형의 적정 수준을 맞추는 자연의 작동 원리에 바탕을 둔다. 노자의 철학은 오늘날 과잉과 부족이 뒤섞인 시대에도 여전히 균형의 지혜를 제공한다.

- ① 과도하게 나가는 인간 성향을 전제한 데서, ㉠와 견해를 같이 한다.
- ② A와 B가 상반되며, 순환 관계를 이룬다고 보는 데서, ㉠와 관점을 같이한다.
- ③ A로 향하는 경향 때문에 A의 진폭이 B의 진폭보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와 입장을 달리한다.
- ④ 인간의 역사에 비해 자연은 상당히 안정적인 진폭을 가지고 순환한다는 데서 ㉠와 관점을 같이한다.
- ⑤ A와 B의 적절한 공존을 통해 최적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와 견해를 달리한다.